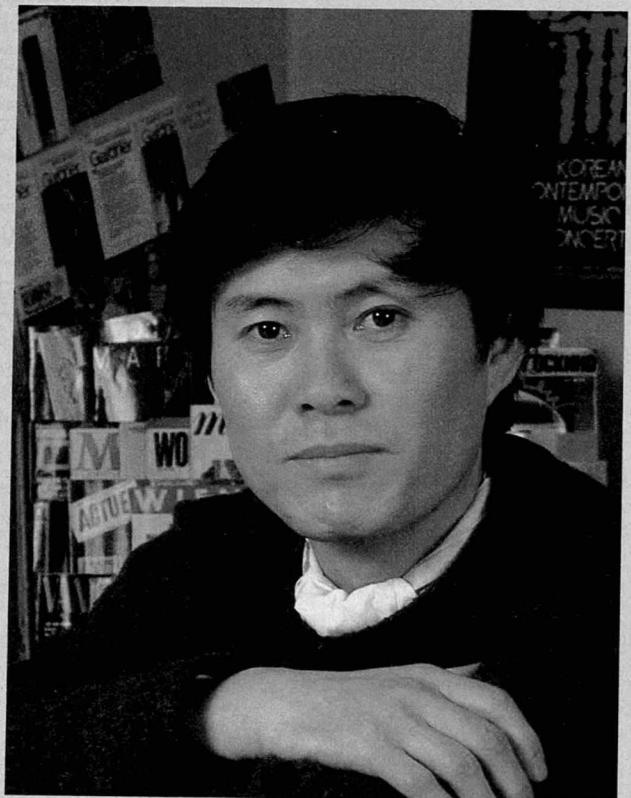




■에디터의 書架■

김호근 프리 에디터



'프리에디터'라고 하면 고개부터 가웃힐 사람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프리에디터임을 고집하는 김호근씨(45). 마포 출판단지 지하실 그의 작업실은 벽면의 구성이나 서가의 배치가 그 자체로서 '프리에디트'된, 프리 혹은 프로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얼핏 전위적인 현란함까지 내비치는 이 방에서 그는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작업들에 몰두해 있다. 그것은 무슨 새롭고 거창한 연구나 대규모 기획이어서가 아니다. 프리에디터로서의 그의 관심은, 지난해에 펴낸 「술의 세계」나 요즘 준비 중인 「한국의 十二支像」처럼, 다양한 소재와 정보를 솜씨있게 정리해 즐겁고 유익한 재미를 주는 책을 만드는데 있다.

사진 · 주명덕

